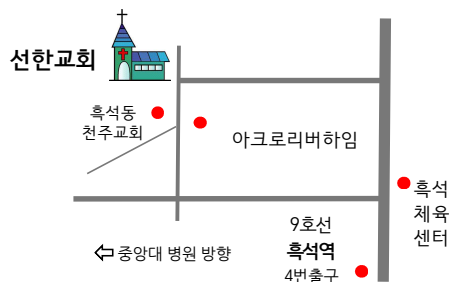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유 아 부)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선 한 꿈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초등부)		바 울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파 워 틴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소년부)		마 리 아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비 전 위 십	오후 2: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협력교회	오인숙, 한배선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교육목사 정용준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편도선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조계승, 이태수	관리장로 500/50 교회	손석규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이용(동작 01, 10, 21)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벧후 1:19)



답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70장 (통일찬송가 79장)			
교 독 문	교독문 37번 (시편91편)			
찬 양 과 경 배	284장 (통일찬송가 206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1장 12~21절		삼상 24:1~6	
설 교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임춘배 목사)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김현석 심지숙 집사 가정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김희상 회장
찬 양	바울회(찬양인도: 신영문 집사)		
기 도	김대희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8장 26~28절		
설 교	성령님의 마음(탄식) (홍진표 목사)		
헌 금 송	바울회 일동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시 112편 1~10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청년/청소년부입니다.
- 4) 주차 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헌 신 예 배

오늘 오후 예배는 바울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3. 새 생 명 축 제

- * 일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축제예배(2부)
- * 오늘 2부 예배 후 1층 안다옥실에서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 * 준비위원: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손영삼 집사, 심인섭 집사, 방성자 집사, 박영근 장로, 오세영 집사, 구영서 집사, 윤 영 전도사

4. 떡 제 공

김대희 장로님 김혜선 권사님 가정(김성찬 전지혜 집사 가정 득녀)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통363)

본문 : 빌립보서 1장 22~26절

말씀 :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 수는 63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특이한 점은 여성은 10% 증가한 반면 남성은 50%가 증가했고, 고령자들은 자살률이 내려가는 반면 10~30대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증가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학업, 직장 내 경쟁이 심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부터 직장까지 과잉 경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환경은 개인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이런 압박감은 자살 충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에는 삶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살하러 가는 길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80세 넘으신 어르신도 건강 채널만 뵙니다. 혹시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다해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힘이냐고 묻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그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는 감옥 속에서 죽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영광이지만,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나는 다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남았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곳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감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시점은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사탄은 겉가에 속삭이며 '내가 사라져 주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여러분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 묵상하시며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벧후 1:12~21)

서 론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함을 알고 유언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항상 생각하라

(1)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12절)

(2)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16절)

[재림의 증거] ①사도들이 들은 것(17~18절) ②선지자들의 예언(19절)

(3) 예언의 기원: ①'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20절)

본 론 ②'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21절)

2. 교훈

(1)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권면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2)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3) 우리가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는?

결 론 예언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진리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대희 장로	오세일 권사
주 방 봉 사	청년/청소년부	요셉회

매일 Q.T.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날짜 : 10월 13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본문	호세아 11:1~11		
말씀요약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고 먹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뜨거운 긍휼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에 돌아와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사랑을 거부하는 백성 11:1~7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불같이 강한 하나님 사랑 11:8~11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잘못과 배반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한절묵상	호세아 11장 8~9절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순종과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 여서!”라는, 존재를 향한 전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불굴의 열정과 의지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품고 사랑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으로 달려가는 저를 향해서도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부르짖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달려갑니다. 제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안아 주셨던 하나님이 저를 다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여유를 갖게 된 중년의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와 여행을 갑니다. 시력이 신통치 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멀리 보이는 나무가 무엇이야?” 아들이 “은행나무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아, 저기 날아다니는 새는 무엇이야?” “까치 떼가 날아가고 있네요.” “아들아, 저기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게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들아,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봉우리가 몇 개나 되지?” 계속되는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저도 계속 대답하는 게 쉽지 않네요.” 툭툭거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질문이 참 많았지.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묻기도 했단다. 그때마다 나는 친절하게 상세히 알려 줬어. 네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아들은 어린 아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아버지도 지치고 신경질이 났을 텐데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친절하게 대답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실한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교회, 직장 등 주변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말씀나누기	호세아 11:1~11
목상포인트	자신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배은망덕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관찰과묵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 내셨는데, 이후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1~2절)
적용하기	신앙생활 초기의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두 팔 벌려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저의 죄를 덮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날짜 : 10월 18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갈라디아서 1:1~10		
말씀요약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책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은혜와 평강의 인사 1:1~5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이사를 전했나요? 손편지나 전화, SNS 등으로 내가 신앙 성장을 도울 지체는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 1:6~10 바울이 강경하게 금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왜곡한 내용이기엔 내가 경계할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1장 7, 10절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복음은 사람 귀에 좋게 돌리는 현혹의 말입니다. 바른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다른 복음은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포장한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과 공동체를 교묘히 혼드는 그릇된 복음을 분별하고 경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 안에 채우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날짜 : 10월 15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본문	호세아 11:12~12:14		
말씀요약	북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고, 유다는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을 예로 드시며 그분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히 격노하시게 한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야곱과 같은 북 이스라엘 11:12~12:6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거짓된 행보에 조상 야곱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곱과 같이 부족해도 내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속이는 에브라임 12:7~14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절묵상	호세아 12장 6절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11:12).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그들의 멸망을 가속하는 촉진제였습니다. 멸망이 예고된 백성에게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삶에 깊이 박힌 죄를 버리고 사랑(인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지요. 제 인생을 스스로 일구어 가려는 교만과 속이는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소서.		

매일 Q.T.		참된 구원자를 떠난 교만한 백성의 종말	날짜 : 10월 16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본문	호세아 13:1~16		
말씀요약	에브라임이 바알로 인해 죄짓고 망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만드니,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셨으나, 교만해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은 패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마리아는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교만한 에브라임에 임할 심판 13:1~8 교만해져 하나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교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종말 13:9~16 불신앙으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나요?		
한절묵상	호세아 13장 3~4절 우상을 따라가면 망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참된 생명과 능력이 없는 우상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혹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상대하는 힘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느껴지는 감정에 속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와 사망의 길에 서 있던 저를 영생의 나라로 옮겨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배 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작게 보거나 잊지 않게 하소서. 흑독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제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매일 Q.T.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복된 약속	날짜 : 10월 17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본문	호세아 14:1~9		
말씀요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회복을 약속하시며, 푸른 잣나무 같은 그분으로 인해 열매를 얻으리라 하십니다.		
묵상질문 1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14:1~3 이스라엘은 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걸리는 나의 불의함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깨닫는 은혜 14:4~9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셨나요? 날마다 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은 어떠할까요?		
한절묵상	호세아 14장 3, 8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만 의지하고, 앗수르의 구원과 우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는다면, 성도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불의함으로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서 놓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을 붙들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적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순종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소서.		